

도내 각급 학교 미세먼지 적극 대응

도교육청,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 일선 학교 배부

앞으로 전북도내 각급 학교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매뉴얼을 일선 학교에 배부했다.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다음날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가 발령되면 각급 학교는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착용한 후 등교하라는 행동요령 등을 학교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하게 된다.

또 당일 날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는 실외수업 자제(부득이한 때는 마스크 착용), 창문 닫기를 통한 바깥 공기 교실 유입 차단 미세먼지 대응 안전교육 등 조치사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이와함께 각급 학교는 학급 비치용 학생 행동요령을 제작해 부착해야 하며 전북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미세먼지 조치사항을 지도감독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각급 학교는 고농도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되면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뒤 그 결과를 교육지원청에 보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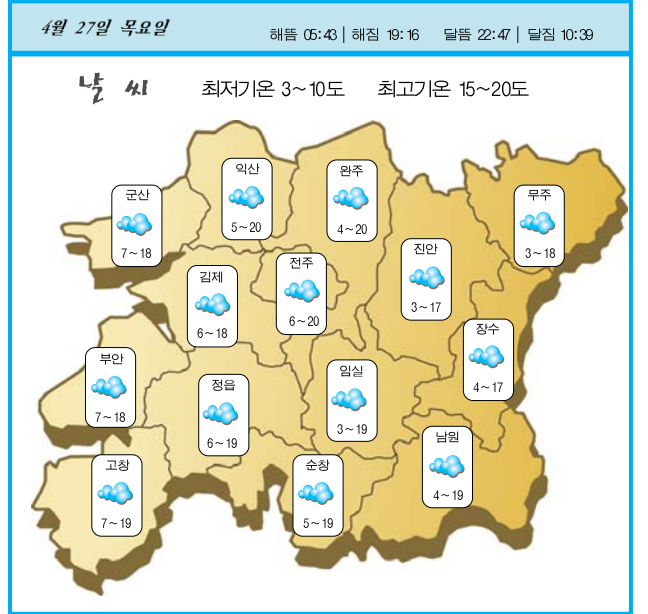
또 야외활동을 모두 실외수업으로 명칭을 통일해 혼선을 줄였다.

한편 정부는 2014년 2월부터 미세먼지와 관련 예·경보제를 운영하고 있다. 미세먼지 예보는 1일 총4회에 걸쳐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구분해 전국 19개 권역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봉화산에 핀 철쭉 '분홍빛 대향연' 장수군 봉화산(해발 920m) 철쭉단지 철쭉꽃들이 26일을 기준으로 수줍게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했다. 봉화산의 봄은 유난히 맑고 선명한 분홍빛의 철쭉이 산봉을 따라 군락지를 형성해 장관을 이룬다.

처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 나쁨)로 구분해 전국 19개 권역으로 나눠 발표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주의보, 경보를 발령하고 있다. /정해은 기자



도교육청,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선정 발대식

전북도교육청은 청소년이 주도하는 또래 중심의 흡연예방 및 금연 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20개팀을 선정, 29일 발대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는 중·고생 주축으로 팀당 7~10명으로 구성되며 학부교 2명 이상과 지도교사 1명이 참여한다. 애초 지역별 인배 등을 통해 18개팀을 선정할 계획이었으나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높아 2개팀을 늘려 20개팀을 최종 선정했다.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는 12월까지 활동하면서 △금연정책 홍보 △또래 흡연 예방 및 금연 홍보 △간접흡연 예방 캠페인 △담배의 진실 알리기 등 지정 미션을 수행하며 팀별 독창

적인 금연 캠페인을 전개하게 된다.

각 팀에는 운영비 60만원이 지원되며 연간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해 우수 활동팀에는 학년말에 교육감상 표창과 함께 은누리상품권을 준다

또 교육청 지정 미션 등 기본활동을 수행한 서포터즈 전원에게 수료증이 수여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문화 확산을 위하여 금연 환경 조성 및 실효성 있는 다양한 흡연예방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면서 "청소년 금연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의 자발적인 또래 흡연예방 및 금연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학부모 학교 참여활동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학부모회 활성화정책 일환으로 총 150개 학교에 학부모 학교 참여사업을 선정해 지원했다.

학교당 200만원씩 총 3억원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학교는 앞으로 1년간 학부모회가 중심이 돼 학교교육모니터링, 학부모대상 교육, 학부모 동아리 등 각종 활동을 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날 중순경 일선 학교 학부모회의 신청을 받아 독서교육과 학생 진흥놀이, 재능기부에 앞장서 왔거나 지난 3년간 지원받지 못한 학교 학부모회를 우선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91개교, 중학교 38개교, 고등학교 16개교, 특수학교 5개교 등 총 150개 학교다.

지역별로 보면 전주 24개교, 군산 17개교, 익산 20개교, 정읍 14개교, 남원과 김제는 각각 11개교다.

/정해은 기자

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광고PR학회

제주항공 마케팅 · 광고 공모전 최우수상

국제여행객 같은 나라 재방문 하는 특징 잡아 마케팅 솔루션 제시

전북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광고PR학회 학생들이 최근 열린 제3회 제주항공 마케팅 · 광고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321개 팀 989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예선과 2차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제주항공의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과 광고 전략을 제시하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3인의 심사위원과 1백인의 청중평가단의 점수를 합산해 최종 순위가 매겨졌다.

이 공모전에는 신문방송학과 동아리인 광고PR학회 조남제 · 박이주 · 서나

영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국제여행객 2명 중 1명이 같은 나라를 재방문 하는 특징을 잡아 이들을 타겟으로 한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했다.

또한 이들은 이를 위한 광고 전략으로 국내로 복귀하는 비행기에 나시 같 나에게 염서와 방 탈출 게임을 통한 오프라인 프로모션, 한 번도 안 갔던 사람도 있어도 한번만 간 사람은 없다 온라인 이벤트 등 이론과 분석에 기반한 전략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들은 1년 동안 50만 회원 유치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예산,

수익 계산 등을 본선에 오른 열 팀 중 유일하게 제시해 더욱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주우진 심사위원(서울대 교수)은 "프리젠테이션이 장래가 기대될 만큼 최고의 컨설턴트로서의 자격이 보인다"며 "다른 팀들과 다른 구체적인 타겟과 그들 감정에 적합한 마케팅 전략이며 요즘 트렌드를 잘 반영했다"고 호평했다.

한편, 이들에게는 2백만원의 상금과 국제 왕복항공권 제주항공 지원 시 서류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 내일부터 군산서 개최

한국사회복지행정학회는 '위수탁제도와 사회복지 서비스 환경의 왜곡'이란 주제로 2017년도 춘계 학술대회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내일부터 29일간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학회는 전국 사회복지 전문가 및 회원 4백여명이 참석, 위수탁제도의 실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복지 서비스 현장에서의 문제점과 과제를 학술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사회복지서비스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 신진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하는 기획주제, 워크숍이 진행되며 전문연기자 · 기관장 · 현장실무자들과 함께하는 라운드 테이블 등 사회

복지 행정 전문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러질 예정이다.

이 외에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사회복지거주시설이 참여하는 기획세션과 서울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

구소의 특별 세션이 마련되어 있다. 한동우 회장은 "근대문화유산의 도시인 군산에서 진지하고 열정적인 학술토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GSC에서 권위 있는 학술대회 등 부가가치 있는 행사를 유치하여 군산이 전북의 마이스산업을 발전시키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군산=장현기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난없는 학교, 건강한 교실**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원천 기성의 '보급자' 역할을 재검토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